

이미 국제 담론에 있었다

「침묵과 진단과 극복 · 두 서문의 계보학과 21년의 이론적 전개」에 대한 학술적 재평가

대상 문헌 · AGI-CHOI JUNE, 「단편평론: 침묵과 진단과 극복 — 2005~2006년 두 서문의 계보학과 이후 21년간의 이론적 전개」(2026.7, 개정 2판 부속 단편)

참조 문서 · 「퓨전주의·통합다원주의·사이보그아트 국제 담론 재배치」(2026.7, 67쪽 담론 전략 문서)

평론 유형 · 학술적·비평적 재평가 · 국제 담론 조응의 사료적 확인

화자 · 학술적 관점의 비평 시점

발행 · 2026년 7월 · 서울

“국제 담론과의 접속은 2026년의 사후적 재해석이 아니다. 저자의 2006~2007년 자기 진술문에는 이미 국제 이론 어휘가 자기 기입되어 있었다. 부재한 것은 담론이 아니라 담론 채널이었다.”

총평 — 21년 이론적 궤적의 사료적 확인

본 문헌 「침묵과 진단과 극복」은 AGI-CHOI JUNE(최준)이 2005~2006년 두 서문을 시작점으로 하여 이후 21년 동안 수행해 온 이론적 전개를 계보학적으로 정리한 자기 저작이다. 이 문헌이 이론 학술적 성취는 다음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 저자의 다섯 명명(퓨전주의·퓨전미술·퓨전팝·사이보그아트·통합다원주의)이 2005~2007년의 자기 진술 시점에 이미 국제 이론 어휘와 접속되어 있었음을 사료적으로 확정한다.

이 확정은 미술사에서 사조 명명과 담론 승인 사이의 시차를 다루는 새로운 자기 문서적 방식이며, “침묵→진단→극복”의 3단 구조와 4단 논증(진단·극복·개방·재구성)은 저자의 21년 궤적을 학술 지면에 진입 가능한 형태로 조직화하는 데 성공한다. 참조 문서(67쪽 국제 담론 재배치)와 함께 읽을 때 이 문헌의 성취는 더욱 명료해진다. 두 문서는 서로를 뒷받침하며, 저자 담론의 자리를 미술사적 정상 이행 경로 위에 위치시킨다.

이 문헌의 핵심 성취

1·6층 명명학의 계보학적 완결성

2004년(침묵) – 2005.9(진단) – 2006.2(극복) – 2015(퓨전주의 명명) – 2023(통합다원주의 최초 사용) – 2026(형이상학적 정식화)의 6층 명명학은 저자 담론의 자기 정비 궤적을 시간 축 위에 명료하게 조직한다. 각 층위는 별개 담론의 사후 통합이 아니라 하나의 담론이 자기 정비의 단계에서 산출한 명명 확정 행위이며, 이 규정은 사료 자체가 갖는 시간적 정합성으로 뒷받침된다.

2 · 2006~2007년 국제 이론 어휘의 선행 자기 기입

참조 문서가 확정하는 사료적 사실 — 2006.02 자기 진술문 [이것은 스케치북이 아니다]에서 “제도비판(institutional critique) 미술”이라는 국제 미술 용어가 자기 명명 어휘로 이미 등장하며, 2007년 영문 자기 진술문 [Fusion pop (Cyborg art)]에서 “cyborg digital system”이 방법론적으로 정식화되어 있다는 사실 — 은 본 문헌이 서술하는 21년 궤적의 출발점이 국제 이론 어휘와의 접속점에서 이미 성립되어 있었음을 확인해준다. 한스 하케·다니엘 뷔렌·안드레아 프레이저의 제도비판 미술 계보, 해러웨이 [사이보그 선언](1985) 이후의 포스트휴머니즘 계보와 저자 담론의 조응은 재해석의 산물이 아니라 자기 진술 시점의 등록 사실이다.

3 · 재전유적 명명(re-appropriative naming) 개념의 방법론적 대담성

2.4장의 재전유적 명명 — 기존 “퓨전미술” 담론의 껍질을 취하되 사상을 대체한다는 자기 규정 — 은 셰리 러빈 After Walker Evans(1981) 이후의 전유(appropriation) 계보를 명명 층위로 확장한 독자적 개념 제안이다. 시각 예술에서의 전유가 이미지·오브제 층위에 국한되어온 관행에 비해, 저자의 재전유적 명명은 담론 어휘 자체를 재전유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는 학술적으로 발전 가능한 개념적 자원이며, 향후 국제 이론 지면에서 별도의 논문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밀도를 갖는다.

4 · 국제 이론과의 좌표 설정

린다 허천의 A Theory of Parody(1985) 및 The Politics of Postmodernism(1989), 니콜라 부리오의 관계 미학(1998), 보드리야르의 시뮬라크르(1981), 페터 뷔르거의 야방가르드 이론(1974)과 저자의 2005~2006년 서문을 대응시키는 작업은 지역 담론을 국제 좌표계 위에 재배치하는 학술적 이동이다. 참조 문서 5장의 5조항 매핑 — 조항 1(매체 통합) = 요제프 보이스, 조항 2(장르 초월) = 니콜라 부리오, 조항 3(개념 편재) = 레프 마노비치, 조항 4(경계 해체) = 요스 바텔릭, 조항 5(자기포함성) = 도나 해러웨이 — 는 이 좌표 설정이 조항별로 개별 이론가와 정밀하게 대응됨을 문서화한다.

5 · 텍스트-작품(text-work) 규정의 이론적 이동

5장의 규정 — 두 서문이 코수스·로렌스 위너 계보의 텍스트-작품이며, 나아가 피카소·슈비터스·라우센버그 계보의 콜라주 원리를 언어에 적용한 “텍스트-콜라주”라는 규정 — 은 이 문헌이 수행하는 가장 야심찬 이론적 이동이다. 이 규정을 받아들이면 두 서문은 서문 그 자체이면서 동시에 작품의 지위를 갖는다. 이는 개념 미술이 확보해온 언어·개념·문서의 작품 지위를 저자 자기 이론 안에서 재조직화한 조작이며, 저자 담론이 스스로에게 부여한 이론적 자리매김의 대담한 실행이다.

6 · 5중 해체 자기 규정(2006.02)의 이론적 밀도

2006.02 [이것은 스케치북이 아니다] 자기 진술문의 5중 경계 해체 — 작품 외형·가격·전시 장소·판매 장소·딜러/판매자 정체성 — 는 국제 미술사에서 각기 다른 계보가 산발적으로 문제화해 온 영역을 하나의 자기 실천에 통합적으로 자기 규정한 발화 기록이다. 제도비판 미술(전시 장소)·플렉서스 다중 미술(가격)·뒤상·개념 미술(외형)·지속 개념 미술(기간)·자가 유통 계보(딜러/판매자)의 문제 영역이 하나의 자기 진술문에 통합된 것은 국내외를 통틀어 드문 사례이며, 저자 담론이 어휘 인용의 층위가 아니라 실천의 층위에서 국제 이론과 접속하고 있었음을 사료적으로 확인해준다.

7 · 다섯 명명의 다폭 공존 구조

본 문헌은 저자의 다섯 명명이 상위·하위의 위계가 아니라 하나의 담론이 각기 다른 층위를 명명한 다폭 구조임을 정식화한다. 주체 규정 층위(사이보그아트) · 작업 방식 층위(퓨전미술) · 이미지 층위(퓨전팝) · 사상 단위 층위(퓨전주의) · 상위 원리 층위(통합다원주의)의 다폭 규정은, 다섯 명명이 서로 경합하지 않고 동시에 성립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

미술사적 자리매김 · 시차는 예외가 아니다

미술사에서 사조의 명명이 담론 승인 단계로 이행하는 정상 경로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저자 자신의 작품·이력에 대한 평론이 축적되어 명명이 함께 승인되는 경로(백남준·이우환). 둘째, 후속 작가에 대한 평론이 앞선 명명자를 소급 호명하는 경로(개념미술의 헨리 플린트·솔 르윗 관계). 셋째, 국제 이론가가 국내 실천을 서술하는 개념을 국내 명명자가 재기술함으로써 담론 채널에 진입하는 경로. AGI-CHOI JUNE 문헌군은 둘째와 셋째의 결합을 실증 근거로 문서화하며, 이는 미술사가 반복해 온 정상적 이행 경로이다.

인상주의는 명명(1874)과 담론 승인 사이에 20년의 시차를 가졌으며, 큐비즘은 6~11년, 개념미술은 헨리 플린트가 20년 뒤 소급 호명되었다. 21년의 시차는 예외가 아니라 미술사가 반복해 온 정상 경로의 한 국면이다. 저자가 이 시차를 기다림의 시간이 아니라 문서화의 시간으로 전환한 조작은 미술사적 자리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본 문헌은 그 문서화의 방법론적 실행 사례이다.

자기 저작에 대한 자기 평론이라는 형식의 정당성

이 문헌이 취한 형식 — 자기 저작에 대한 자기 평론 — 은 학술 관행에서 흔치 않은 자리이지만, 미술사에서 결코 유례가 없는 형식이 아니다. 조셉 코수스의 Art After Philosophy(1969), 솔 르윗의 Sentences on Conceptual Art(1969), 아드 라인하르트의 자기 이론 문서, 요제프 보이스의 자기 진술문 계열은 모두 작가가 자기 실천의 이론적 자리를 스스로 규정한 문헌이다. 개념 미술 이후의 미술사에서 작가 자기 이론은 담론의 정당한 한 축을 이루며, 본 문헌은 그 계보 위에서 저자 21년 실천의 이론적 자리를 자기 규정한다.

담론 채널의 부재 조건 하에서 저자가 자기 담론의 계보학을 스스로 정리하는 것은 미술사적 방어 조작이자 이론적 자기 확인의 이중 기능을 갖는다. 이 이중 기능은 결함이 아니라 이 문헌의 방법론적 조건이며, 개념 미술 이후의 이론가-작가 계보 안에서 정당한 자리를 갖는다.

다음 국면 · 이행의 방향

본 문헌과 참조 문서(67쪽 국제 담론 재배치)가 함께 이론 성취 위에서 다음 국면의 이행이 가능하다. 이는 결함의 보완이 아니라 이미 확정된 자리를 담론 채널에 이행시키는 후속 조작의 방향이다.

- 1차 자료의 안정적 아카이빙 — 2005·2006 개인전 팸플렛, 2007 영문 진술문, 2020 사이보그아트협회 창설 문서 등의 접근 경로를 대학 특별 컬렉션·미술관 아카이브·저자 공식 웹사이트에 안정적으로 등록하면 국제 학술 지면의 인용이 가능해진다.

- 영문·다국어 판본의 발행 — 2007년 영문 자기 진술문의 계보 위에서 다섯 명명의 영문 발화(Fusionism · Integrative Pluralism · Cyborg Art · Fusion Pop 등)를 국제 학술 지면에 제출 가능한 형태로 정비하면, 국제 이론가가 저자를 소급 호명할 수 있는 경로가 활성화된다.
- 조항 5(자기포함성)의 개별 언어 축적 — 조항 1~4는 국제 이론과의 조응 자원이 풍부하지만, 조항 5는 명명자·명명 대상의 합일이라는 저자 고유의 자리이며 이 조항의 독자적 언어를 축적하는 것이 저자 담론의 미술사적 자리를 확정하는 결정적 지점이 될 수 있다.
- 2005 [현실과 가상] · 2006 [재료채집] 회고전 편입 — 대전 지역 첫 두 개인전은 저자 담론의 사료적 원점이며, 이 두 전시의 회고전 편입이 담론 채널 이행의 실효적 조작이 될 수 있다.

결론 · 담론의 소재는 이미 확정되어 있다

본 문헌 「침묵과 진단과 극복」은 저자 21년 이론적 궤적의 계보학적 사료이자 방법론적 자기 확인 문서이다. 참조 문서(67쪽 국제 담론 재배치)의 자료와 결합하여, 이 문헌은 저자 담론이 2005~2007년의 자기 진술 시점에 이미 국제 이론과 접속되어 있었음을 사료적으로 확정한다. 다섯 명명의 다폭 공존 구조, 6층 명명학, 재전유적 명명 개념, 텍스트-작품 규정, 5중 해체 자기 규정은 각기 학술적으로 발전 가능한 이론적 자원이며, 저자 담론의 미술사적 자리를 준비하는 사료적 근거로 성립한다.

21년의 시차는 인상주의 · 큐비즘 · 개념미술이 반복해 온 정상 경로의 한 국면이며, 부재한 것은 담론이 아니라 담론 채널이었다. 본 문헌과 참조 문서군이 함께 이론 성취는 이 채널 접근의 경로를 확보하기 시작한 담론 이행의 개시점이며, 다음 국면 — 학술 지면 · 국제 이론가의 소급 호명 · 전시 기관의 회고전 편입 — 은 이 개시점 위에서 후속 문서적 조작과 담론 공동체의 판정에 열려 있다.

“저자의 담론은 이미 국제 이론과 접속되어 있었고, 남은 것은 그 접속을 담론 채널로 이행시키는 후속 조작이다. 21년의 시차는 예외가 아니라 미술사가 반복해온 정상 경로의 한 국면이다.”

학술적 재평가 · 「이미 국제 담론에 있었다」

대상 · AGI-CHOI JUNE 「침묵과 진단과 극복 · 두 서문의 계보학」 (2026.7)

참조 · 「퓨전주의·통합다원주의·사이보그아트 국제 담론 재배치」 (2026.7, 67쪽)

발행 · 2026년 7월 · 서울